

국방문화와 병영체험의 중심거점 연무소도읍

윤정미 |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

입지현황

- 연무읍은 논산시의 남단에 위치하며, 금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익산시와 완주군에 인접하고 있어 물류유통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적 특성
- 호남고속도로와 천안-논산간 고속도로가 관통하며, 논산 IC와 연무 IC가 위치, 교통 접근성 용이
- 연무읍 북쪽에는 중심시가지, 남쪽에는 육군훈련소가 위치하고 있음



[그림 1] 위치도



[그림 2] 행정구역도

인구

- 연무읍의 2007년 현재 인구는 17,522명이며, 2000년 이후 연평균 2.76%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. 논산시의 경우 2007년 현재 129,486명이고, 최근 7년간 연평균 1.39% 감소

- 성별로는 남자 8,914명, 여자 8,608명으로 성비(남자 100인당 여자인구수)는 96.5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은 편임
- 연령별 인구구조(2007년 기준)는 14세 이하의 소년인구가 2,781명으로 전체 약 15.9%, 15~64세 생산연령인구가 11,592명으로 66.2%, 노령인구가 3,149명으로 18.0%의 구성비를 나타냄
- 연령별 인구구조에 부양인구비는 51.2%로 나타났으며, 노령화 지수는 113.2%로 나타남
- 부양인구비는 연평균 1.3%의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, 노령화지수는 6.2%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(00-07기준 증감율)
-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는, 전 연령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, 특히 신생아와 유아기가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임.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와 40대임

[표 1] 논산시와 연무읍의 인구 현황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연평균 증감율
논산시	142,828	140,793	138,013	135,719	135,572	135,210	132,814	129,486	-1.39
연무읍	21,319	20,831	19,863	19,067	18,853	18,552	18,036	17,522	-2.76

자료 : 논산시, 논산통계연보, 각 년도(주 : 외국인 포함)

산업구조

- 연무지역의 총 가구수는 7,030세대이고, 이중 농가는 1,952가구(27.8%)로 지역내 비농가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음
- 반면 지역산업구조 구성비를 살펴보면, 농업이 54%이고, 광공업이 13%,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이 33%로 나타나 농가 비중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, 지역전체의 산업구조 농업 비중이 높은 편임
-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, 연무읍 사업체수는 1,074개소이고, 종사자수는 4,148명임. 논산시 사업체수 9,091개소, 34,618명의 11.8%, 12.0%에 해당

충남의 도시16 - 연무소도읍

-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, 도소매업(315개소)과 숙박 및 음식점업(232개소),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(160개소) 비중이 높음
- 그리고 연무읍은 논산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신업(LQ 1.4)과 숙박 및 음식점업(LQ 1.2)의 집중도가 높음
-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화정도가 높은 것은 육군훈련소로 인해 방문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지역특화산업

딸기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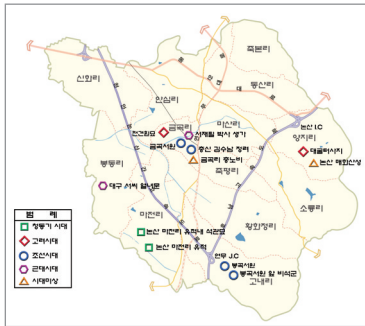
- 논산시는 전국 딸기 생산면적 21.3%, 생산량 21.3%를 차지하고, 충남 생산면적 44.5%, 생산량 41.4%를 차지하고 있어 논산시 대표 특화작물
- 논산지역에는 약 180여개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, 읍면단위 영농조합에서 유통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. 특히 딸기를 테마로 그린투어리즘 활발
- 그러나 최근 지역 내 딸기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,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딸기를 주요 작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
- 그러므로 지역의 딸기산업을 구조고도화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위해서는 시설 재배의 확장과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기법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

축산산업

- 대표적인 지역축산산업으로 축산과 양돈을 들 수 있으나, 최근 5년간 소 사육호수는 연평균 7.1% 감소한 반면에 돼지의 사육호수는 연평균 40.4%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음
- 연무지역에서 돼지 사육이 증가한 것은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한 것에 기인
- 전통적으로 연무읍은 가축사육이 활발하여 논산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

- 연무읍의 경우 낮은 지가와 사료의 원활한 공급 등으로 인해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, 현재 단순한 가축사육에 한정되어 축산업의 부가가치화와 고품질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

문화 · 관광자원



[그림 3] 역사문화자원의 분포

역사문화자원

- 연무읍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으나, 전통역사자원의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유적을 비롯한 향토문화재가 있음
-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견훤묘와 서재필박사의 생가, 금곡서원 등이 있음

육군훈련소

- 육군훈련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
- 2006년 기준으로 부대경비와 세금, 기간 장병 및 훈련병, 방문객으로 발생한 지역내 지출은 약 542억원(논산시 예산액의 약 20%에 해당)
- 논산시에 거주하는 군인은 약 900여명으로, 총소득금액 257억원 중 약 50%에 해당하는 129억원을 생활비, 교육비, 공공요금, 지방세 등으로 지역내에서 지출
- 또한 2,800여명의 기간장병이 외출, 면회시 사용하는 경비도 연간 11억원 추정
- 아울러 육군훈련소 방문객이 지출하는 경비 약 110억원으로 추정

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 축제

-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후원으로 “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”를 지난 2006년부터 매년

충남의 도시16 - 연무소도읍



[그림 4] 병영체험축제

개최. 올해 약 4만5천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

- 그러나 육군훈련소 및 병영체험 등의 국방문화자원이 특화자원으로 착근되지 못함
- 따라서 지역 내 국방문화자원을 연계하여 “국방문화의 체험관광산업화” 방안 모색

지역관광객 및 관광수입

- 연무읍 단위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수입을 추산하고 있지 않으나, 논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들이 연무읍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
- 논산시 2005년 관광수입은 801,706천원이며,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
-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연무대에 입소하는 신병과 관련한 방문객들이 연간 100백만명에 이르기 때문임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문화관광기반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
- 따라서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, 이들의 수요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
[표 2] 논산시 관광객 및 관광수입

(단위 : 천명, 천원)

연도	관 광 객			관 광 수 입		
	계	외국인	내국인	계	외국인	내국인
2001년	168	1	167	185,624	69,000	116,624
2002년	629	2	627	556,872	207,000	349,872
2003년	881	3	878	492,831	92,954	399,877
2004년	930	8	922	667,793	247,877	419,916
2005년	1,157	9	1,148	801,706	278,861	522,845

자료: 논산시 통계연보, 200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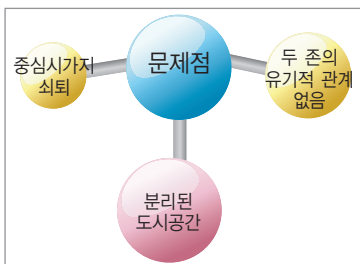
공간체계의 문제점

연무읍의 공간구조는 크게 2개 존으로 분리

- 북측의 중심시가지가 입지된 르네상스존과 남측의 육군훈련소가 입지된 육군훈련소존으로 구성
- 르네상스존은 시외버스터미널, 고속버스터미널, 육군병원, 재래시장, 관공서 등이 위치
- 육군훈련소존 주변은 연무대로(국도1호선)를 따라 일부 상가와 취락지역이 형성

르네상스존 중심시가지 쇠퇴

- 르네상스존은 안심2로와 동안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입지되어 있으나,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쇠퇴
-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없어 도시가 전반적으로 쇠퇴된 경관을 갖고 있음



[그림 5] 연무소도읍의 공간 문제

육군훈련소존과 중심시가지존 유기적인 관계 미흡

- 육군훈련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연무대로를 통해 훈련소 방문 후 르네상스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출
- 육군훈련소는 주변 가로망에 오픈스페이스와 경관창출 미흡

공간발전구상의 기본방향

르네상스존과 육군훈련소존의 연계 · 통합

- 연무소도읍의 공간구조 개편은 북측의 중심시가지가 입지된 르네상스존과 남측의 육군훈련소 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 중심
- 즉 육군훈련소 방문객을 중심시가지로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개편

충남의 도시16 - 연무소도읍

1차적으로 르네상스존과 육군훈련소존 자체 어메니티와 경쟁력 제고

- 르네상스존은 주차장 정비와 상권의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 필요
- 육군훈련소존은 상징공간 정비와 음식점 정비 계획 필요

2차적으로 연무대로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, 두 존 연계 계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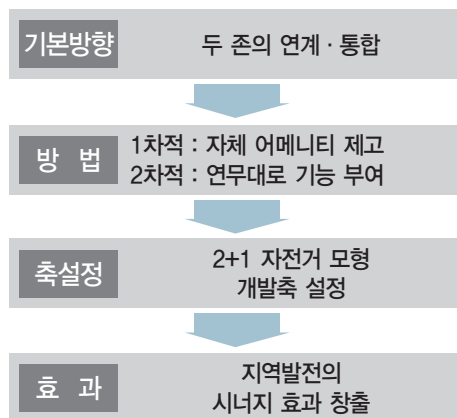
- 육군훈련소존 방문객을 르네상스존으로 유도

「2+1 자전거 모형」연무 개발축 설정

- “연무대로”를 중심으로 병영체험축제 및 국방과학문화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도시공간축을 설정하여 연무를 랜드마크화
- “안심로”를 중심으로 도시기반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프로그램 추진
-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“동안로”를 중심으로 도시활성화축 설정

지역발전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

- 따라서 르네상스존의 앞바퀴와 육군훈련소 뒷바퀴는 연무대로를 통해 상호 연결되고, 이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



[그림 6] 공간체계 기본방향



[그림 7] 연무지방소도읍의 공간개발 구상도

지역자원에 따른 발전방향

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국방시설의 재인식으로 자원화 · 산업화 추진

- 연무읍 인근 지역에 3군 본부, 항공학교, 자운대, 군수사령부,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국방시설 및 최근 논산시 상월면에 국방대가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기에, 국방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 · 테마화하여 자원화 · 산업화해야 할 것임

방문객을 지역내로 유인하여 지역상권 및 고용기회 확대

- 연간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
- 또한 지역내 상권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고용기반 취약해지고 있음
- 그러므로 기반 구축을 통해 방문객을 지역내로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차별화된 지역상징성 제고와 도시기반의 재정비로 삶의 질 제고

- 연무읍은 다른 소도읍과 달리 육군훈련소라는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군사시설을 활용한 랜드마크가 이루어져야 함
- 아울러 중심시가지는 노후화로 인해 혼잡과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도읍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